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81호 【루게 제26155호】 주제 107 (2018)년 10월 8일 (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나라를 방문한 미합중국 국무장관을 접견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10월 7일 우리 나라를 방문한 미합중국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오를 접견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백화원영빈관에서 마이크 폼페오 미합중국 국무장관을 따뜻이 맞이하시고 반갑게 인사를 나누시면서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생산적이고 훌륭한 담화를 진행하면서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게 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며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이날 미국대표단의 숙소인 백화원영빈관에서 오찬을 마련하시였다.

오찬에서는 조미수뇌 회담의 성공과 조미관계발전을 위하여 쌍방 사이에 의사소통과 접촉확대를 더욱 활성화해나갈데 대한 흥미진진한 의견들이 교환되였다.

이 역사적인 조미수뇌상봉과 두 나라사이의 관계발전을 위하여 여러 차례 평양을 래왕하며 정력적으로 활동하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면서 그의 우리 나라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이어 마이크 폼페오 미합중국 국무장관과 담화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석상에서 제1차 조미수뇌회담에서

합의된 6.12공동성명리행에서 전진이 이룩되고있는데 대하여 평가하시고 이를 위해 진심어린 노력을 기울이고있는 트럼프대통령에게 사의를 표시하시며 자신의 인사를 전해 주기 바란다 고 따뜻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긍정적으로 변화발전하고있는 반도지역정세에 대하여 평가하시고

비핵화해결을 위한 방안들과 쌍방의 우려사항들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건설적인 의견을 교환하시였으며 제2차 조미수뇌 회담개최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량국최고지도부의 입장을 통보하고 진지한 토의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예정된 제2차 조미수뇌회담을 계기로 전세계의 조미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해결과 지난 회담에서 제시한 목표달성에서 반드시 큰 전진이 이룩될것이라는 의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석상에서는 제2차 조미수뇌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할데 대하여 합의하고 그와 관련한 절차적문제들과 방법들에 대하여도 논의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매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량국최고수뇌들사이의 튼튼한 신뢰에 기초하고있는 조미사이의 대화와 협상이 앞으로도 계속 훌륭히 이어져나갈것이며 조만간 제2차 조미수뇌회담과 관련한 훌륭한 계획이 마련될것이라고 확신하시면서 마이크 폼페오 미합중국 국무장관과 작별인사를 나누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사 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적당건설업적을 끝없이 빛내여나가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백전 백승 조선로동당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영원한 수령이시다.

오늘 우리는 전체 인민이 당의 령도따라 공화국상징 70수를 승리자의 대정지축전으로 성대히 경축한 기세로 5개년전략목표수행 증산돌격운동의 불길들 더욱 세차게 지펴 올리고있는 시기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21돐을 맞이하고있다.

주제 86 (1997)년 10월 8일은 우리 당과 혁명발전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역사의 날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온 나라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헌신에 따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시니 우리 당의 백승의 역사와 전통이 줄기차게 이어지고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은 더욱 활력에 넘쳐 전진할수 있게 되었다. 세계적으로 공인된 조선로동당의 높은 존엄과 권위, 위대한 인민의 나라, 주체조선의 영웅사사적행위를 이념과 배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지금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은 조선로동당을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항도자로 건설하고 조국방위에 강성인영의 새 역사를 펼쳐주시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부굴한 영광을 드리고있다.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은 사죄의 김일성-김정일주의 회의 기치들이 사회주의위업,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하는데서 나서는 중대한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조선로동당을

영원히 김일성-김정일주의당으로 강화발전시키고 당의 혁명적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조선로동당을 혁명하게 이끄시어 주체혁명위업 수행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회계의 정치선로이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찌기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시는 첫 시기부터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으시고 혁명적당건설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여오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당건설사상과 령도에 의하여 조선로동당은 가장 공고한 기반을 가진 강위력한 혁명적당으로, 사회주의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는 가장 권위있는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될수 있었다.

특히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의 중책을 지니시고 우리 혁명을 이끌어오신 나날은 우리 당원들 역사에서 빛나는 자리를 차지한다. 조국과 인민의 운명이 판가미되던 엄혹한 시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드시고 우리 당을 주체혁명의 강위력한 항도적력량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당의 영도적역할을 백방으로 높이 지휘한 사회주의수요전에서 현 전선승을 이룩하시고 조국인영의 데로를 활짝 열어놓으시였다.

주체혁명위업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심화발전되고있는 오늘 위대한 장군님의 당건설사상과 업적은 우리 혁명의 만년제보로 더욱 빛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혁명적당건설의 기본원칙과 방도를 비롯하여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전면적으로 밝혀주시고 귀중한 당건설강령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당은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백사의 방향타를 역세게 틀어쥐고 조국선혁명을 확신성있게 이끌어가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은 곧 우리 당이며 장군님의 사상으로 전진하는 길에 조선로동당의 강대함과 사회주의 강국건설위업의 승리가 있다는것이 오늘날의 장엄한 투쟁에서 우리 인민이 다시금 세계가 되는 캘리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주체적당건설사상과 업적을 끝없이 빛내여나가는것은 중요한것은 혁명의 유흔과 위업을 충직하게 말하여나가는것이다.

당의 참전사, 건설자이며 혁명을 개척하고 이끌어온 수령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실현하는것은 혁명적당의 신성한 본분이며 당원들의 숭고한 도덕의리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당건설령도는 혁명적당이 수령의 혁명사상과 위업을 어떻게 말하여나가는가 하는것을 실현으로 보여준 빛나는 귀감이다. 조선혁명을 이끌어오신 나날은 우리 당원들 역사에서 빛나는 자리를 차지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김일성주의의 기치 높이 당건설과 당활동은 오직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시대로, 수령님식대로 해가시였다.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위대한 수령님의 총대중시사상을 선군정치미론으로 심화발전시키시고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전방을 일체화하기 위한 사업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오신것이 위대한 장군님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한 령도밑에 당의 조직건설, 사상건설, 영도예술건설이 심화되고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강국건설 위업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서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인위원을 우리 당원들의 출발점으로, 최고원칙으로 내세우시고 한평생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인위원을 우리 당원들의 출발점으로, 최고원칙으로 내세우시고 한평생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밑에 전방에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기풍이 자란 채고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 헌신 의 백사가 변함없이 수놓아지게 되었다. 간고하고 시련에 찬 투쟁을 통하여 우리 당은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인민들과 뜻과 정으로 혼연일체를 이룬 혁명적당, 어머니당이 다시금 세계가 되는 캘리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당건설사상과 업적을 끝없이 빛내여나가는것은 수령의 위업에 있어서 충직한 우리 당의 혁명적정신을 절절히 고수해 나간다는것이다. 우리의 수백만 당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생전의 뜻과 유흔을 배어 당의 신성한 본분이며 당원들의 숭고한 도덕의리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당건설령도는 혁명적당이 수령의 혁명사상과 위업을 어떻게 말하여나가는가 하는것을 실현으로 보여준 빛나는 귀감이다. 조선혁명을 이끌어오신 나날은 우리 당원들 역사에서 빛나는 자리를 차지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김일성주의의 기치 높이 당건설과 당활동은 오직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시대로, 수령님식대로 해가시였다.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위대한 수령님의 총대중시사상을 선군정치미론으로 심화발전시키시고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전방을 일체화하기 위한 사업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오신것이 위대한 장군님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한 령도밑에 당의 조직건설, 사상건설, 영도예술건설이 심화되고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강국건설 위업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서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인위원을 우리 당원들의 출발점으로, 최고원칙으로 내세우시고 한평생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인위원을 우리 당원들의 출발점으로, 최고원칙으로 내세우시고 한평생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시였다.

병도가 있었기에 제국주의자들의 전대미문의 제재봉쇄와 비열한 내부와외부 테러공작을 뿌리 못하였고 우리 조국방위에서는 세계적인 승리와 기적들이 번이 창조될수 있었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방식으로 해가는데 혁명의 승리가 있다. 오늘 우리가 믿을것은 그 어떤 신비한 힘이 아니라 자주정신이 강한 위대한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정신력과 창조력이다. 당과 인민이 한데 어그러가 되어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투쟁기풍으로 백사의 온갖 도전과 시련을 뚫고 현승공격, 계속전진해나갈 때 우리 혁명의 전진은 더욱 가속화되게 될것이다.

조선로동당을 현시대의 가장 존엄하고 강위력한 정치적함모부로 건설하고 우리 당과 혁명을 백승으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당건설사상과 위업은 오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에 의하여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빛나게 계승발전되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당건설사상과 업적을 끝없이 빛내여나가는것은 중요한것은 수령의 위업을 충직하게 말하여나가는것이다. 우리의 수백만 당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생전의 뜻과 유흔을 배어 당의 신성한 본분이며 당원들의 숭고한 도덕의리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당건설령도는 혁명적당이 수령의 혁명사상과 위업을 어떻게 말하여나가는가 하는것을 실현으로 보여준 빛나는 귀감이다. 조선혁명을 이끌어오신 나날은 우리 당원들 역사에서 빛나는 자리를 차지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김일성주의의 기치 높이 당건설과 당활동은 오직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시대로, 수령님식대로 해가시였다.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위대한 수령님의 총대중시사상을 선군정치미론으로 심화발전시키시고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전방을 일체화하기 위한 사업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오신것이 위대한 장군님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한 령도밑에 당의 조직건설, 사상건설, 영도예술건설이 심화되고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강국건설 위업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서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인위원을 우리 당원들의 출발점으로, 최고원칙으로 내세우시고 한평생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시였다.

실천에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흔을 당의 강령으로 틀어쥐고 한치의 양보나 드림도 없이 끝까지 집행하여야 하며 모든 사업을 장군님의 사상과 업적을 고수하고 빛내이는데 지향시키고 복종시켜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우리 당과 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이시다.

우리는 회세의 원수위원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계시기에 조선의 승리는 과학이라는 역사의 신념을 배어 새기고 그 어떤 천지창조가 닥쳐오내도 당중앙이 가버린 직선침로라 힘차게 나아가야 한다. 당의 권위를 절대화하고 권절히 옹호하며 당중앙을 중심으로 하는 당의 사상의지적통일과 혁명적당건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당안에 언제나 단결의 정신, 단결의 기풍이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모든 사업을 당의 유일적령도밑에 조직전행하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당중앙의 결정을 따라 처리하며 당의 결정, 지시가 허부담받지까지 즉시에 집행되고 즉시에 공지와 자부심을 가질수있고 간직하고 집행하는 전민적행위를 할하여 힘차게 투쟁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당건설사상과 위업은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만년제보이다. 우리는 조선로동당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영원한 수반이신 위대한 장군님을 전민적행위를 할하여 힘차게 투쟁해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에 의하여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빛나게 계승발전되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인위원을 우리 당원들의 출발점으로, 최고원칙으로 내세우시고 한평생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시였다.

지켜주고 인민들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당원들은 당의 인민중심, 인민중중, 인민사랑의 뜻을 심장에 새기고 진리의 생의 길을 앞장에서 헤치면서 인민이 바라는 일, 인민들이 령을 볼수 있는 일을 한가지라도 더 찾아하는 인민의 참된 충복이 되여야 한다.

오늘의 혁명적인 투쟁에서 당조직들의 역할을 비상히 높여나가야 한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의 불길들 세차게 지펴올리는데 당사업의 희생을 총집중하여야 한다. 혁명적인 사상공세의 원바람을 일으켜 강국건설의 전역이 혁명적, 애국적, 투쟁적으로 세차게 불어날지 하여야 한다. 당의 사상발전, 당정책위원회의 전초선을 지켜선 당의 기본전투단위인 당세력들이 오늘의 투쟁에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야 한다. 공장, 기업소당조직들의 영도적역이 갖는 단 혁명적규율과 질서를 세우도록 하여야 한다.

당사업전반에 인민대중적주의를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인민을 받들어야 한다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뜻을 심장에 새기고 모든 당사업과 당활동을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고 집행해나가며 당사업의 주되는 힘을 인민들의 복리의 당건설사상과 비론, 불멸의 업적을 계승발전시키고, 전면적으로 깊이 연구해나가고 배어 포야오며 당사업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영원한 수반으로 높이 모시고 장군님께서 가르키신 길을 따라 힘차게 나아가는 조선로동당의 위업은 절충불변이다. 모두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당중앙의 두리에 뭉클같이 뭉쳐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자.

## 헌신의 자욱에 새겨진 숭고한 뜻

어머니 우리 당에 대한 고마움이 한껏 차일지는 10월의 이 강산에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정신을 심어주는 하나의 구조가 우리의 심장을 세차게 격동시킨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이 구호에 담겨진 숭고한 뜻을 새겨볼수있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며 인민사랑의 정지를 끝없이 펼쳐신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이 뜨겁게 어여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당의 구호를 높이 들고 인민대중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인민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며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여야 합니다.》

주제 100(2011)년 12월의 첫 일요일이 있는 일이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의 문화정신생활을 위해 마련된 개선청년공원유치장을 찾으시였다.

한겨울의 맨발 추위로 마다하지 않으시고 유치장을 돌아보시

는 위대한 장군님께 한 일꾼은 잊어뜨는 목소리로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말씀드리였다.

《우리 인민들의 행복을 위해 일요일 추운 날에 또다시 우리 개선청년공원유치장을 찾아주시어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내가 일요일 추운 날에 개선청년공원유치장에 찾아온데 대하여 고맙다고 하는데 인민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는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렇듯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는것을 자신의 책으로 여기시며 유희장의 어머니뜻을 돌아보시였다. 그러자 추운 유희실들을 가동시키도록 하시고 일꾼들이 직접 하도도록 이끄시였다.

줄곧 웃으며 케도회전만을 타고있는 일꾼들을 보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에서 인민들의 행복한 모습을 그려보시는듯 만사들을 다 잊으시고 환히 웃으시였다.

케도회전만이 돌아가는 동안 한 일꾼이 위대한 장군님께 개선청년공원유치장을 찾으셨

인민들의 민영을 보고드리였다. 일꾼으로부터 유희장을 찾았던 인민들의 행복에 넘친 민영을 물어주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인민들이 좋아하면 된다고 하시면서 만족을 금치 못하시였다.

다음으로 가시에서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인민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 길이 마음쓰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꾼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 길이 마음쓰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꾼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 길이 마음쓰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꾼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 길이 마음쓰시였다.

인민을 위해 기울이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시였다. 유희장을 떠나시기에 앞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꾼들에게 포다시 간곡히 당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꾼들에게 포다시 간곡히 당부하시였다.

인민들에게 보다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려는 당의 의도가 어떻게 실현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인민의 심부름꾼인 우리 일꾼들이 얼마나 이룩하게 노력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개선청년공원유치장을 관리운영하는 모든 단위 일꾼들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당의 구호를 심장에 새기고 일을 더 잘하여 이곳에서 인민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계속 크게 울려 퍼지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

위대한 장군님의 간곡한 당부를 새겨진 일꾼들의 가슴은 뜨거워올랐다. 그들은 인민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계속 크게 울려 퍼지게 하려고 하신 우리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어 인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나갈 결심을 심장깊이 새겨안았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12월에 어머니장군님께서 개선청년공원유치장에 찾아오시어 남긴 잊지 못할 이야기는 오늘도 우리 일꾼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며 인민을 위한 열사복무의 한길로 힘있게 떠밀어주고있다. **본사기자 함정호**

## 어머니랑, 그 부름과 더불어

###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라

인제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꾼들에게 어느 한 나라에서 당과 대중이 리합되어 엄중한 사태가 벌어지는데 대하여 이야기하시였다. 당이 인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그런 일이 벌어질것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이 선생이라는 노래도 있지만 우리 당은 인민을 선생으로 여기고 인민들에게 말을 붙여야 한다고, 당이 인민을 떠나 복무에 뜬 기쁨이 없이는 안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당일꾼들은 수령님에게**

### 우리 당의 본분

주제 93 (2004)년 11월말 어느 한 인민군부대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군인들의 병설에도 들리시였다. 병설의 여러뜻을 돌아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부대지휘관들에게 담요가 좀 남아보인다고 하시였다.

병사들과 함께 그 담요를 덮고자면서도 담요가 남아있다는 생각을 전혀 해보지 못했던 부대지휘관들은 그이께 담요를 공급받는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대하여서와 담요가 아직도 새것이나 같다고, 아무런 불편이 없다고 뜨거움에 젖어 말씀드리였다. 그러는 그들을 자애로 넘친 시선으로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동행한 일꾼들에

게 군인들이 쓰는 담요를 탐하고 욕심부린다면서도 보물이 일지 않게 잘 관리해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군인들에게 잘 관리하라고 하시였다.

담요를 생산공급함에 대하여 어떤 강요하는것은 그들을 잘 먹고 입고 추운 겨울에도 따뜻이 지낼수 있게 보살펴주는 것이 우리 당의 본분이기때문이라고, 군인들이 우리 담요를 이

### 영원한 삶의 품

주제 100(2011)년 어느 날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찌기 전회의 불길속에서 어머니수령님의 묘소를 처음으로 편찬하는데 큰 기여를 한 일꾼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되시였다.

우리 혁명대오안에 기여되었던 나쁜 놈들의 책동으로 하여 그는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오일름 남긴채 수신년세월을 보내지 않으면 안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너무도 가슴이 아프시며 한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가 다른것은 다 제쳐놓고 그가 위대한 수령님의 묘소를 처음으로 편찬한 사실

너무나 사랑하고 부르셨는데 어머니가 자기 자식들의 생활을 돌보는 일을 누구에게 맡겼는다고 하시였다.

인제나 우리 병사들을 나의 아들딸들이라시며 하나를 주시며 면 면을 다 주고싶어하시는데 우리 장군님의 다정한 사랑은 그대로 온 나라를 보살피는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이었다.

### 본사기자 함영민

하나님으로도 그는 응당 수령님께 충직한 혁명전사라고 말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조선로동당의 고귀한 영예를 다시금 지니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은혜로운 사랑은 기나긴 세월 그의 운명에 드리워졌던 어둠의 광막을 밀어내고 제생의 언덕에 세워주었다. 어머니의 품, 사랑을 누누나 스스럼없이 부르는 이 말속에 인민들의 정치적생명을 보살피고 주고 빛내여주며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우리 당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과 감사의 정이 미려있는 것이다. **본사기자 함영민**



위대한 당의 령도 따라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본사기자 함영민





# 백두의 굴함없는 공격정신으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며 힘차게 전진

## 황해남도 물길 2 단계 공사장에서

### 유능한 작전가, 완강한 실천가들이 안아온 자랑찬 결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중산동력공원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자강도려단 일군들과 동력대원들이 파강한 총돌격전을 벌여 2단계공사에서 많은 대상건설물을 100% 완공하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이들은 2만 8000여㎡의 도랑을 처리하고 1만여㎡의 굴착장, 3900여㎡의 콘크리트벽, 2300여㎡의 장석공사를 진행하여 4개소의 물길굴, 명굴, 잠관건설을 기한전에 끝냈다.

이 혁신적성공은 그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도 유능한 작전가, 완강한 실천가가 되어 전투장마디에서 전진의 돌파구를 열어제낀 려단일군들의 일본새와

매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오늘의 격동적인 시대는 당정책관철의 제일기수인 일군들의 사업기풍과 일본새를 혁명적으로 개선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황해남도물길 2단계공사를 다그칠때 대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을 받아안은 려단일군들과 동력대원들은 뜻깊은 올해에 많은 대상공사들을 무조건 완공할 높은 목표에 산악같이 떨쳐나섰다.

2단계공사를 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무조건 완공하자. 양명찬, 최길은동무를 비롯한 려단일군들은 이런 결사의 각오인고 높이 세운 공사목표를 무조건 수행하기 위한 대담하고 립체적인 작전을 펼치였다. 려단이 령방을 집중하여 물길공사를 진행할 때였다. 대상건설을 짧은 기간에 끝내자면 공사속도를 종전보다 2배로 높여야 하였다. 그런데 로력과 실비를 비롯하여 막아서는 애로와 난관은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건설부문의 일군들은 당의 건설구상과 의도를 실현하기 위

한 투쟁에서 유능한 작전가, 완강한 실천가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었다.

현실은 정황이 백가지이면 방도도 백가지를 적적 내놓을줄 아는 솜씨에는 지휘관들을 요구한다. 이런 립장에서 려단일군들은 공사속도를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한 대책들을 세워나갔다.

일군들은 대대들의 특성에 맞게 전투과업을 명백히 주고 어떤 조건에서도 많은 과제를 계획대로 수행하도록 요구성을 높여왔다. 지난 시기 물길공사에서 이룩된 경험과 교훈에 기초하여 물길공들의 비약적리하는 단위들을 고정배치하였다. 한것은 대대들이 자기 단위의 특성에 맞는 특기를 가지고있었기때문이다.

예를 들면 물길굴출구에서 다른 대대과공들을 비롯한 기능공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진행하여 종전보다 작업실적을 올렸지만 그것으로 만족할수 없었다. 그것은 교대분배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따라 작업능률이 크게 오르내리기때문이었다.

일군들은 이를 위해 우선 교대시간을 철저히 지키는 문제를 중시하였다. 일부 작업자들에서 작업실적을 더 높이겠다는 취지로 교대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었다. 이것은 다음작업조

에 부정적영향을 미쳤것이다. 때문에 려단일군들은 작업조호상간 교대시간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 문제를 강하게 들어내고나갔다.

여기서 일군들이 잘한것은 총화사업을 실정에 맞게 한것이다. 작업실적이 높다고 하여도 교대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평가에서 고려하였다.

다음으로 일군들이 힘을 넣은것은 교대된 실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한것이다. 지난 시기 작업공들은 작업이 끝나면 실비를 다음작업조에 그대로 넘겨주었다. 이렇게 되니 다음작업조에서 실비를 점검하는데도 일정한 시간이 걸렸으며 그만큼 작업시간을 잃게 되었다.

려단일군들은 작업조들에서 교대 30분전에 실비를 점검하여 넘겨주도록 하였다. 그리고 총화평가사업을 잘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작업공들속에서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적투쟁기풍이 높이 발휘되게 하였다. 또한 그날 자기가 리용한 실비상태를 잘 알기때문에 정비시간을 줄일수 있었다. 교대된 실비점검보수제계를 철저히 세운 결과 작업능률이 1.5배이상 올랐다.

려단의 경험은 일군들이 당에서 준 과업을 세기일에 무조건 완철할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전진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유능한 작전가, 완강한 실천가가 된다면 어디서나 기적을 창조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글 본사기자 최정열 일사진 본사기자 최정열

부정적영향을 미쳤것이다. 때문에 려단일군들은 작업조호상간 교대시간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 문제를 강하게 들어내고나갔다.

여기서 일군들이 잘한것은 총화사업을 실정에 맞게 한것이다. 작업실적이 높다고 하여도 교대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평가에서 고려하였다.

다음으로 일군들이 힘을 넣은것은 교대된 실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한것이다. 지난 시기 작업공들은 작업이 끝나면 실비를 다음작업조에 그대로 넘겨주었다. 이렇게 되니 다음작업조에서 실비를 점검하는데도 일정한 시간이 걸렸으며 그만큼 작업시간을 잃게 되었다.

려단일군들은 작업조들에서 교대 30분전에 실비를 점검하여 넘겨주도록 하였다. 그리고 총화평가사업을 잘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작업공들속에서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적투쟁기풍이 높이 발휘되게 하였다. 또한 그날 자기가 리용한 실비상태를 잘 알기때문에 정비시간을 줄일수 있었다. 교대된 실비점검보수제계를 철저히 세운 결과 작업능률이 1.5배이상 올랐다.

려단의 경험은 일군들이 당에서 준 과업을 세기일에 무조건 완철할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전진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유능한 작전가, 완강한 실천가가 된다면 어디서나 기적을 창조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글 본사기자 최정열 일사진 본사기자 최정열

### 황해북도려단 일군들과 동력대원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오늘의 반공마대진군에서 영웅적조선인민의 불굴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폭발시켜야 합니다.》

황해북도려단은 물길공사장으로 제일 긴 5000m의 잠관공사를 진행하고있다. 려단의 일군들과 동력대원들은 자력정성,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잠관굴착과 바닥기초콘크리트기기를 끝내고 벽체타입전투를 진입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려단앞에는 뜻밖의 난관이 조성되었다. 역수로 흘러지는 비로 하여 붙어난 강물이 공사장을 휩쓸었던것이다. 조금이라도 주저하거나 지체한다면 귀중한 실비들을 순간에 잃어버릴수 있었다.

시간을 다루는 다양한 정황속에서 일군들과 동력대원들은 주저하지 않고 차오르는 물속에 시숨없이 뛰어들었다. 누군가가 사름치는 물을 헤치고 실비에 바를을 걸었다. 《힘껏 당기라-》 이런 웨침소리가 울리기 바쁘게 모두가 바살을 있는 힘껏 당겼다. 그야말로 목숨을 내다야 하는 사생결단의 전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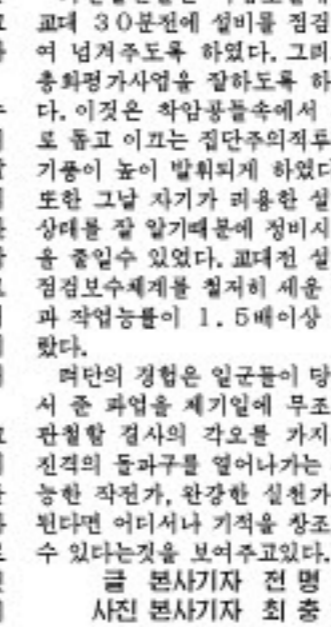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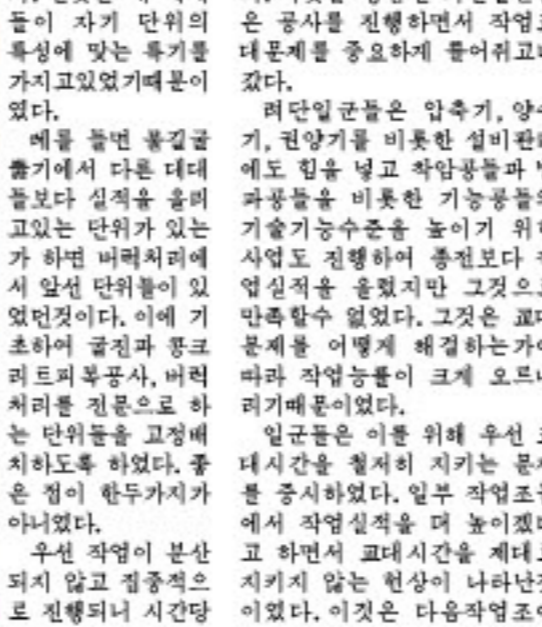
이들의 심장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자리잡고있었다. 그것은 물이 마르면 실비, 자기들의 살피라도 같은 실비들을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내야 한다는 각오였다. 이런 결사의 각오로 충만한 일군들과 동력대원들이기에 현물의 위험도 아랑곳하지 않고 긴장한 전투를 벌여

### 심장이 뛰는 화답하리

변압기를 비롯한 실비들을 물속에서 끝내려 건져냈다. 그리고 다른 실비들도 공사에 다시 리용할수 있게 원상복구하였다. 간고한 전투 끝에 실비들은 구원되지만 침수된 공사구덩이까지 겨우 1수천㎡의 감량이 이들의 가슴을 무겁게 내리놓았다. 줄줄이 계산해보아도 큰 불미해를 가지자면 수습일은 실히 걸려야 했다.

물이 흘러들기를 알아서 기다렸다가 아니라 한물이 그대로 양수가 되어서라도 큰 불미해를 하루빨리 가셔내고 공사를 본래대로 내밀자. 그로하여 당에서 정해진 기간에 공사를 끝내고 원공의 보고, 승리의 보고를 드리자. 일군들의 격동적인 호소에 동력대원들은 실천행동으로 화답해나섰다. 이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양수기로 물을 퍼내는데와 동시에 물속에 뛰어들어 감량을 저지하기 위한 전투를 벌였다. 온몸이 볼주머니가 되었지만 손에서 맞팔이 흔들리지 않고 낮과 밤이 없는 전투를 벌리는 동력대원들의 기백은 찬란하였고 그들의 나날이 확대되었다. 결사의 의지로 피를 흘린 동력대원들의 무명은 마침내 기적을 안아왔다. 단 10일 남짓한 기간에 큰공해해를 막아내며 사내는 혁신을 일으켰던것이다. 그들의 무명은 무엇이 보아주는가, 당의 부름에 심장으로 화답하며 사생결단의 투쟁기풍을 발휘해나갈 때 기적을 창조할수 있다는것을 실천을 통하여 증명해주고있다.

본사기자



### 자재의 확보를 위한 투쟁

남포시려단의 후방기지물 물이든 사람들은 누구나 감탄한다.

빈방을 개간하여 조성한 수경묘의 부침방에서는 해마다 많은 양의 남새가 생산되는가 하면 축산기지에는 돼지, 염소, 토끼, 닭들이 육성되고 온실에는 오이, 가지, 옥잠을 비롯한 갖가지 남새들이 푸르싱싱 자라고있다. 알뜰하게 꾸러진 속소도 흥겹게 떠들었다.

여기에는 말형, 민누이가 되어 동력대원들을 위한 배양을 담당하고있다. 《후방사업은 건설속도를 높일수 있는 근본요인인 하나인것만큼 건설자재의 생활에서 사소한 불편도 느끼지 않도록 골짜기까지 다듬어줍니다.》

공사의 첫발을 댈 때였다. 속소를 꾸러기 전에 먼저 공사에 달려붙은 동력대원들의 모

### 시려단에서

습을 바라보는 려단일군들의 생각은 환희로 넘쳤다. 후방사업은 곧 정치사업이라는것을 명심하고 후방사업을 본때있게 해보자.

김광명, 김승일동무를 비롯한 려단일군들은 이런 결심을 더욱 굳히며 후방사업계획을 세워나갔다.

비경제적개관 온실, 축산기지 건설 등 해야 할 일은 참으로 많았다. 그것도 공사를 내밀면서 해야 하는 어려운 목표였다. 제일 인력까운것은 부침방으로 비유할만 한 땅이 부족했었다. 그들은 밤이 깊도록 뒤늦게 비경지를 찾아 그곳을 개간하기 위한 투쟁에 달려붙었다.

동력대원들과 함께 생활하며 일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여기서 간간히 작업의 원함이나 서서시 간헐이었다.

려단의 일군들은 동력대원들의 말형, 민누이가 된 심정으로 이리저리 노력하였다. 후식을 미루어가며 돌을 추어넣고 전지기를 날마다 땅을 갈았다.

일군들의 뒤를 따라 동력대원들이 떨쳐나섰다. 이렇게 애은 보람으로 수경묘의 비경지가 개간되었다. 그 땅

### 에 부린 씨앗에서 첫 싹이 돋아

남포시려단의 후방기지물 물이든 사람들은 누구나 감탄한다.

빈방을 개간하여 조성한 수경묘의 부침방에서는 해마다 많은 양의 남새가 생산되는가 하면 축산기지에는 돼지, 염소, 토끼, 닭들이 육성되고 온실에는 오이, 가지, 옥잠을 비롯한 갖가지 남새들이 푸르싱싱 자라고있다. 알뜰하게 꾸러진 속소도 흥겹게 떠들었다.

여기에는 말형, 민누이가 되어 동력대원들을 위한 배양을 담당하고있다. 《후방사업은 건설속도를 높일수 있는 근본요인인 하나인것만큼 건설자재의 생활에서 사소한 불편도 느끼지 않도록 골짜기까지 다듬어줍니다.》

공사의 첫발을 댈 때였다. 속소를 꾸러기 전에 먼저 공사에 달려붙은 동력대원들의 모

### 결사관철, 이것은 우리의 투쟁본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일 부름이러면 한마음한뜻으로 떨쳐일어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헤무는 자들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본래이며 기질입니다.》

평양시려단의 일군들과 동력대원들이 수평의 유능한결사관철을 위하여 당의 보고를 물리자.

일군들과 동력대원들의 가슴 가슴은 이런 철칙의 신념과 의지로 세차게 노위였다.

지난 9월 어느날 공사장에서 는 긴급회의가 열렸다.

려단이 많은 언제공사들을 올해에 무조건 끝내자면 언제까지 감악이공사를 본격적으로 내밀어야 하였다. 그런데 2000여㎡의 장석공사가 선행되지

### 평양시려단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일 부름이러면 한마음한뜻으로 떨쳐일어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헤무는 자들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본래이며 기질입니다.》

평양시려단의 일군들과 동력대원들이 수평의 유능한결사관철을 위하여 당의 보고를 물리자.

일군들과 동력대원들의 가슴 가슴은 이런 철칙의 신념과 의지로 세차게 노위였다.

지난 9월 어느날 공사장에서 는 긴급회의가 열렸다.

려단이 많은 언제공사들을 올해에 무조건 끝내자면 언제까지 감악이공사를 본격적으로 내밀어야 하였다. 그런데 2000여㎡의 장석공사가 선행되지

### 현지보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일 부름이러면 한마음한뜻으로 떨쳐일어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헤무는 자들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본래이며 기질입니다.》

평양시려단의 일군들과 동력대원들이 수평의 유능한결사관철을 위하여 당의 보고를 물리자.

일군들과 동력대원들의 가슴 가슴은 이런 철칙의 신념과 의지로 세차게 노위였다.

지난 9월 어느날 공사장에서 는 긴급회의가 열렸다.

려단이 많은 언제공사들을 올해에 무조건 끝내자면 언제까지 감악이공사를 본격적으로 내밀어야 하였다. 그런데 2000여㎡의 장석공사가 선행되지

### 새 기록창조를 위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일 부름이러면 한마음한뜻으로 떨쳐일어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헤무는 자들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본래이며 기질입니다.》

평양시려단의 일군들과 동력대원들이 수평의 유능한결사관철을 위하여 당의 보고를 물리자.

일군들과 동력대원들의 가슴 가슴은 이런 철칙의 신념과 의지로 세차게 노위였다.

지난 9월 어느날 공사장에서 는 긴급회의가 열렸다.

려단이 많은 언제공사들을 올해에 무조건 끝내자면 언제까지 감악이공사를 본격적으로 내밀어야 하였다. 그런데 2000여㎡의 장석공사가 선행되지

### 황해북도려단 풍년광산대대전투장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일 부름이러면 한마음한뜻으로 떨쳐일어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헤무는 자들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본래이며 기질입니다.》

평양시려단의 일군들과 동력대원들이 수평의 유능한결사관철을 위하여 당의 보고를 물리자.

일군들과 동력대원들의 가슴 가슴은 이런 철칙의 신념과 의지로 세차게 노위였다.

지난 9월 어느날 공사장에서 는 긴급회의가 열렸다.

려단이 많은 언제공사들을 올해에 무조건 끝내자면 언제까지 감악이공사를 본격적으로 내밀어야 하였다. 그런데 2000여㎡의 장석공사가 선행되지

### 진취적인 일본새와 높은 공사속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일군들은 강성국가건설의 요구와 현실적조건에 맞게 건설의 선구자를 배로 정하고 능숙한 조직적수완과 대담하고 용이 큰 작전으로 자기 단위에 맡겨진 건설과제를 대상별로 단계별로 불이 번쩍 나게 해제쳐야 합니다.》

함경북도려단 일군들과 동력대원들이 100여㎡의 명굴공사를 빠른 기일내에 결속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것은 대담하고 용이 큰 작전으로 전진의 돌파구를 열어 공사속도를 부단히 높여나간 려단일군들의 진취적인 일본새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 함경북도려단 일군들의 사업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일군들은 강성국가건설의 요구와 현실적조건에 맞게 건설의 선구자를 배로 정하고 능숙한 조직적수완과 대담하고 용이 큰 작전으로 자기 단위에 맡겨진 건설과제를 대상별로 단계별로 불이 번쩍 나게 해제쳐야 합니다.》

함경북도려단 일군들과 동력대원들이 100여㎡의 명굴공사를 빠른 기일내에 결속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것은 대담하고 용이 큰 작전으로 전진의 돌파구를 열어 공사속도를 부단히 높여나간 려단일군들의 진취적인 일본새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 황해북도려단 풍년광산대대전투장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일 부름이러면 한마음한뜻으로 떨쳐일어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헤무는 자들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본래이며 기질입니다.》

평양시려단의 일군들과 동력대원들이 수평의 유능한결사관철을 위하여 당의 보고를 물리자.

일군들과 동력대원들의 가슴 가슴은 이런 철칙의 신념과 의지로 세차게 노위였다.

지난 9월 어느날 공사장에서 는 긴급회의가 열렸다.

려단이 많은 언제공사들을 올해에 무조건 끝내자면 언제까지 감악이공사를 본격적으로 내밀어야 하였다. 그런데 2000여㎡의 장석공사가 선행되지

### 새 기록창조를 위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일 부름이러면 한마음한뜻으로 떨쳐일어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헤무는 자들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본래이며 기질입니다.》

평양시려단의 일군들과 동력대원들이 수평의 유능한결사관철을 위하여 당의 보고를 물리자.

일군들과 동력대원들의 가슴 가슴은 이런 철칙의 신념과 의지로 세차게 노위였다.

지난 9월 어느날 공사장에서 는 긴급회의가 열렸다.

려단이 많은 언제공사들을 올해에 무조건 끝내자면 언제까지 감악이공사를 본격적으로 내밀어야 하였다. 그런데 2000여㎡의 장석공사가 선행되지

### 현지보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일 부름이러면 한마음한뜻으로 떨쳐일어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헤무는 자들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본래이며 기질입니다.》

평양시려단의 일군들과 동력대원들이 수평의 유능한결사관철을 위하여 당의 보고를 물리자.

일군들과 동력대원들의 가슴 가슴은 이런 철칙의 신념과 의지로 세차게 노위였다.

지난 9월 어느날 공사장에서 는 긴급회의가 열렸다.

려단이 많은 언제공사들을 올해에 무조건 끝내자면 언제까지 감악이공사를 본격적으로 내밀어야 하였다. 그런데 2000여㎡의 장석공사가 선행되지

### 황해북도려단 풍년광산대대전투장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일 부름이러면 한마음한뜻으로 떨쳐일어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헤무는 자들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본래이며 기질입니다.》

평양시려단의 일군들과 동력대원들이 수평의 유능한결사관철을 위하여 당의 보고를 물리자.

일군들과 동력대원들의 가슴 가슴은 이런 철칙의 신념과 의지로 세차게 노위였다.

지난 9월 어느날 공사장에서 는 긴급회의가 열렸다.

려단이 많은 언제공사들을 올해에 무조건 끝내자면 언제까지 감악이공사를 본격적으로 내밀어야 하였다. 그런데 2000여㎡의 장석공사가 선행되지

### 새 기록창조를 위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일 부름이러면 한마음한뜻으로 떨쳐일어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헤무는 자들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본래이며 기질입니다.》

평양시려단의 일군들과 동력대원들이 수평의 유능한결사관철을 위하여 당의 보고를 물리자.

일군들과 동력대원들의 가슴 가슴은 이런 철칙의 신념과 의지로 세차게 노위였다.

지난 9월 어느날 공사장에서 는 긴급회의가 열렸다.

려단이 많은 언제공사들을 올해에 무조건 끝내자면 언제까지 감악이공사를 본격적으로 내밀어야 하였다. 그런데 2000여㎡의 장석공사가 선행되지

### 현지보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일 부름이러면 한마음한뜻으로 떨쳐일어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헤무는 자들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본래이며 기질입니다.》

평양시려단의 일군들과 동력대원들이 수평의 유능한결사관철을 위하여 당의 보고를 물리자.

일군들과 동력대원들의 가슴 가슴은 이런 철칙의 신념과 의지로 세차게 노위였다.

지난 9월 어느날 공사장에서 는 긴급회의가 열렸다.

려단이 많은 언제공사들을 올해에 무조건 끝내자면 언제까지 감악이공사를 본격적으로 내밀어야 하였다. 그런데 2000여㎡의 장석공사가 선행되지

